



오디 수확 분주

본격적인 오디(뽕나무 열매) 수확철을 맞아 지난 17일 담양읍에 위치한 메타세쿼이아 길 옆 오디 밭에서 까맣게 잘 익은 오디를 수확하는 한 농부의 손질이 분주하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목포 임성지구 개발 내년 하반기 착공

市, 중간보고회 개최...사업 본격화

토지 감보율 어떻게 책정할지 관건

목포시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사업지구인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감보율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백련지구(807세대), 용해 2지구(2775세대), 대성지구(1391세대) 등 이미 조성중이거나 분양중인 택지지구가 곳곳에 있어 사업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18일 “지난 17일 시청 상 황실에서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성지구 개발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는 그동안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개발방향 설정, 개발계획(안) 설명,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감보율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

인 만큼 최소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감보율을 낮추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에 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시는 개발계획수립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별도 환지설계를 한 후 환지에 정지 지정을 통해 필지별 감보율 결정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임성지구를 임성 역세권 개발로 목포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이곳을 주거·상업·문화·생태상업도시 등 21세기형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람, 공청회,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4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성지구는 임성역 역세권개발과 남악신도시, 항후 개발이 가능한 무안군 등 인접부의 도시가능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계개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석현동, 옥암동 일원 197만9000㎡(약 60만평) 부지에 1909억원을 투입하며,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결합된 제3섹터 혼용방식으로 시행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215개 업체 참여 ‘여성 창업박람회’

道, 21일 실내체육관...창업정보관 마련 상담도

목포에서 시·군 215개 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가 열린다. 전남도는 18일 “오는 21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서부권 9개 시군 215개 구인업체와 구직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제2차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를 비롯해 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군이 참

여하며 215개 구인업체가 현장면접을 한다. 35개 구인업체와 채용 게시판에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면접을 하는 180개 간접 구인업체로 나눠 면접 기회도 제공한다. 또 창업정보관을 마련해 10개 업체가 나와 창업상담을 하고, 전남협동조합지원센터는 참여해 개인 창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확대가 가능한 협동조합의 성공전략 등을 상

담한다. 전남도 배양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17년까지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고용률 70%와 238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며 “여성 취업·창업박람회가 여성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열린 취업박람회에서는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동부권 5개 시군 200개 구인업체가 417명을 채용했고, 전남도는 오는 10월 2일 여수에서, 10월 30일 장성에서 각각 열 계획이다. /오광목기자 kroh@

농어촌공, 내부 경영평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오병희)는 최근 지사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1등지사’ 실현을 위해 2013년도 내부경영성과 평가 지표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표관리 담당자들은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만회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시종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병희 지사장은 “경영목표와 고객만족 두 목표를 달성해 1등 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관광 무안’ 이끌 인프라 구축 박차

무안군

지난해 보결선거로 당선된 김철주 무안군수는 자신이 약속한 6개 분야 45개 공약사업을 매일 점검하며, 이행 여부와 그 정도를 살피고 있다. 최근 기업도시 지정 해제로 인해 실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김 군수는 “무안을 전남 서남권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국비 35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과 무안 발전을 견인할 장기개발 축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쪽으로는 회산연꽃방죽을 중심으로 영산강변을 따라 4계절 체류형 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서쪽으로는 모두 3000억원을 투입, 삼향 마동~해제 도리포~현경 해운리를 연결하는 231.8km의 해안관광 일주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국지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신안군의 해상국립공원과 영광군의 칠산 앞바다를 연결하는 백수도로와 연결돼 서남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4계절 관광벨트화 추진

자율형공립고 내년 개교

교통편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비 500억원이 지원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나서 9개 읍면 권역에 21건의 대형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내 가축사육 규모 2위인 무안의 특징을 감안해 축산과를 신설하고 직소 민원실 운영에 나섰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주요 농작업

의 70%를 기계화하겠다는 목표를 추진중이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양파의 약리작용 연구와 친환경 한우특구 지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대의 10만여 평의 백련군락지가 있는 회산백련지를 사계절 체류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올해 30억원 등 지난 2008년부터 4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무안생태갯벌 등 기존 자원과의 연계시킬 방침이다. 기존 무안·현경·해제교를 통합, 국비 420억원으로 자율형 공립고인 무안거점고가 내년에 개교할 예정에 있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무안공항의 장기간 침체, 남악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전남도·전남개발공사와의 마찰, 목포대 의과대 유치, 2014년 예정된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성공 개최 등 과제로 산적해 있다. 김 군수는 “무안국제공항은 무안만이 아니라 광주·전남 발전의 지렛대인 만큼 국제선 및 제주노선 증·신설 등의 대책을 세우는데 모든 지자체들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태안 해역에서 건진 그 보물

해양문화재연구소 8월4일까지 매병 특별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18일부터 오는 8월4일까지 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매병(梅甁) 그리고 준(樽) 향기를 담은 그릇’을 주제로 문화재인 매병에 관한 특별전을 갖는다. 국내에서 매병을 단독 주제로 한 특별전은 이번 전시가 처음으로, 이번 특별전은 지난 2010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태안 마도 해역에서 수중 발굴한 청자매병 2점이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품으로 보물 4점을 비롯해 관련 유물 50여 점이 선보인다. <사진> 유려한 어깨선과 날씬한 모양을 갖고 있는 매병은 알맞 보편 똑같이 보이지만, 막상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보면 각각의 크기와 색깔, 모양이 모두 다르다. 또 매병은 감삼용 화병뿐만



아니라 꽃병, 참기름병 등으로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됐다. 전시에서는 마도 2호선 발굴 보물지정 청자매병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건진 매병들, 고려시대 매병의 다양한 제작상황과 쓰임, 당시 동아시아에서 매병의 활용상에 관해 보여주며, 분청사기매병도 만나볼 수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완도수목원 ‘서각 작품전’

7월까지 제한도 등 50점

국내 유일의 난대상록수가 집단 자생하는 완도수목원(원장 박형호)에서 19일~7월 31일까지 서각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전통 한옥으로 건립된 수목원 내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목표에 거주하는 중정 전경영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난화첩’, 미산 허형의 ‘매화도’ ‘대나무’, 남봉 허건의 ‘소나무’ ‘구절초’ 작품 등 50여 점이다. 중정 전경영 작가는 한국예술대전 서각부분 특선을 비롯해 각종 상을 수상했고 목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전남산림박물관에서는 지난 해부터 지역 향토작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오광목기자 kroh@k

since 1982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 [미국 · 독일 · 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통완비)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요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ole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아동(초·중·고)	미취학아동(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